

2025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서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호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교육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직업선택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여가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문화예술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정보접근권)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정책참여권)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목차

청소년 현장

004

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확산되어 사회적 가치까지

007

2025년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및 성과

008

1.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현황 008
2. 2025년 사업 추진 경과 012
3. 활동성과 총평 014
4. 활동사진 016

정책 제안서

018

1. 고양시 공공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이용한 장기 실종 아동 정보 공개 020
2. 고양시청소년재단 스포츠 전문화 수련관 내 인바디 설치 024
3. 고양특례시 남녀 청소년 대상 HPV 9가 백신 지원 028
4. 청소년 대상 지역 정치민주시민 교육 확대 032
5. 고양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전교육 지원 사업 036
6. 고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040
7. 고양시 빗물받이 반영구 위치 표식 확대 사업 044
8. 고양특례시 일산 라페스타 거리 및 지하철역 인근 전단지 수거함 설치 048

참여 소감

052

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확산되어 사회적 가치까지

25대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우찬미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5대 위원장으로서, 2025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한 정책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며 이 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참여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실과 협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심화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위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정책 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소년 주도 워크숍을 강화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며, 위원회의 결속력을 높였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기며, 함께 성장하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과 또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공공와이파이 접속화면을 활용한 장기 실종 아동 정보 공개」 제안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청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가능했던 성과로, 고양시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도 단위로 확산되어 사회적 가치까지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님과 늘 가까이에서 지도해주신 송병준 선생님,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든든한 조력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만 고양 청소년을 대표하는 참여기구로서, 더 많은 청소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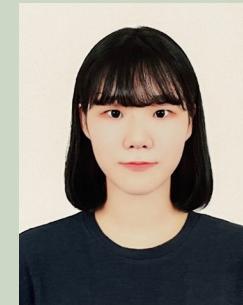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임원진

1.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현황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 최초 설치 연도: 2000년
- 구성원수 : 총 16명
- 학교급별(초: 3명, 중: 4명, 고: 3명, 대: 6명)
- 사업기간: 2025. 2. 22. ~ 2025. 12. 31.
- 예산현황: 748만원(시비 : 280만원 / 출연금 : 468만원)
- 담당지도자: 성명(직위) 송병준 팀장
- 연락처: 010-2310-8794, 이메일 bj@gcy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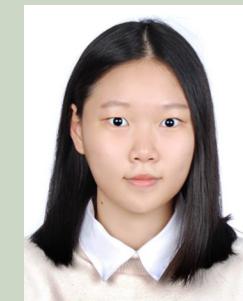
연번	이름	성별	주소	학교	임원/분과
1	우찬미	여	고양시	명지대	위원장
2	김규리	여	고양시	컨벤션고	부위원장/교통안전
3	박은빈	여	고양시	명지대	학술국장/환경
4	이소윤	여	고양시	오마중	사무국장/교통안전
5	이소연	여	고양시	두원공과대	홍보국장/건강복지
6	김규민	남	고양시	컨벤션고	교육 분과장
7	정은아	여	고양시	덕성여자대	교통안전 분과장
8	구서영	여	고양시	서울대	환경 분과장
9	조윤슬	여	고양시	고양국제고	건강복지 분과장
10	이수연	여	고양시	도래울중	건강복지
11	정서준	남	고양시	오금초	환경
12	노규진	남	고양시	백마중	교육
13	장동혁	남	고양시	동국대	건강복지
14	김동혁	남	고양시	지효초	교통안전
15	강지민	여	고양시	덕양중	환경
16	신채영	여	고양시	정발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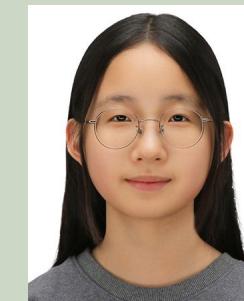
위원장 우찬미



부위원장/교통안전 김규리



학술국장/환경 박은빈



사무국장/교통안전 이소윤



홍보국장/건강복지 이소연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건강복지



분과장 조윤슬



이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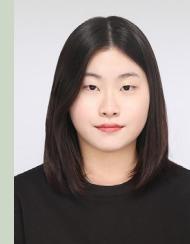


이수연



장동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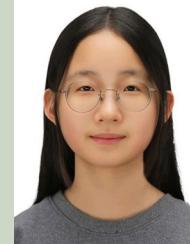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교통안전



분과장 정은아



김규리



이소운



김동혁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교육



분과장 김규민



노규진



신채영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환경



분과장 구서영



박은빈



정서준



강지민

2. 2025년 사업 추진 경과

	행사명	주요내용	대상 및 참석인원
2월	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면접 2. 22.(토) 10:00~13:00	- 신규 위원 면접 심사(17명 면접 진행) - 위원 선발 및 역량평가, 결과발표(총 16명) - 기존 위원 4명, 신규위원 16명 총 20명 선발	23명
	20~25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배 기수 차담회 2. 28.(금) 10:00~13:00	- 20~25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차담회를 통한 선배와의 대화, 연어 프로젝트 등 25년 활동 안내 - 청소년참여기구 연락처 확보 등 진행	참여위원 선배기수 8명
	오리엔테이션 3. 15.(토) 10:00~13:00	- 위원들 간 친목 도모 및 팀워크 강화 활동 - 참여 사다리 8단계 소개 및 참여 활성화 교육	21명
3월	임원선거 및 1차 정기회의 3. 22.(토) 10:00~13:00	- 선거 및 민주주의 교육 진행 -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공약 사항 발표 - 임원 선출 투표 및 확정 (위원장, 부위원장, 각 임원 3명, 총 5명 선출)	16명
	참여위원회 위촉식 4. 5.(토) 10:00~13:00	- 위원장 환영사, 대표이사 격려사, 고양시장 축사 - 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덕양구청) - 위원증 및 명함 수여(여성가족과 진행) - 명함 교환 및 상호인사, 소감 및 각오 다지기	고양시장 등 24명
4월	참여 정책 워크숍 4. 12.(토) ~4. 13.(일)	- 고양특례시의원 특별 강의 / 송규근 의원 - 정책제안활동 워크숍 1, 2 / 남화성 박사 - 참여기구 선배와의 만남(총 13명) - 정책 제안서 작성 방법 등 / 유병철 제안 강사	시의원 등 43명
	수련관 참여기구 연합활동 4. 19.(토) 12:00~15:00	- 마두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및 참여기구 소개 및 관계형성 활동 - 분과 위원회 결성 및 정기회의 진행	8명
5월	고양시 청소년 의견 수렴활동 5. 17.(토) 10:00~13:00	- 청소년 축제 부스 운영을 통한 고양시 청소년 의견 수렴 설문조사 진행 - 고양시 청소년 정책 관련 FGI 조사 등 -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 등	고양시 청소년 등 65명
	2차 정기회의 5. 24.(토) 10:00~13:00	- 고양시 청소년 조사 내용 공유 및 FGI 조사 결과발표 진행. 정책 발굴 등 회의	20명
	참여위원회 대학생 모임 5. 30.(토) 16:00~19:00	-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학생 7명 모임을 통해 향후 고양시 참여 활동가 양성 과정 등 의견 나눔	대학생 7명

6월	주민참여예산제 기초 강의 6. 7.(토) 10:00~13:00	- 고양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업하여 강사 및 예산 지원, 기초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강의 진행	공무원 등 18명
	주민참여예산제 실습 및 심화과정 6. 21.(토) 10:00~13:00	-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서 작성 및 실습 및 피드백 - 고양시 청소년의회와 연합하여 심화 과정 토론 - 총 8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제출 완료	공무원 등 19명
7월	정책제안서 개인 발표 7. 5.(토) 10:00~13:00	- 정책제안서 브레인스토밍 진행 - 개인 위원들이 생각하는 각 생각 발표 자리 진행	14명
8월	정책제안서 모듬 발표 7. 26.(토) 10:00~13:00	- 정책제안 분야별 발표 및 동료 피드백 진행 - 또래 의견 나눔을 통한 상호 보완 진행	17명
	참여위원회 선배와의 만남 8. 9.(토) 10:00~13:00	- 정책제안서 선배 피드백 진행	참여위원 선배 기수 등 16명
9월	참여위원회 실무자와의 만남 8. 23.(토) 10:00~13:00	- 정책제안서 관련부서 담당자 피드백 진행	관련부서 담당자 등 15명
	참여위원회 동행멘토단 만남 9. 6.(토) 10:00~13:00	- 정책제안서 동행 멘토단 맞춤형 1:1 코칭 - 정책 제안서 피드백 진행 - 정책 제안서 최종 수정	15명
10월	참여위원회 워크숍 9. 20.(토) 10:00~18:00	- 참여위원회 친목도모 및 워크숍 진행(롯데월드) - 고양시 예산담당관실 지원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롯데월드) 이용료 확보	14명
	발표력 향상과정 10. 11.(토) 10:00~13:00	- 참여위원회&의회 청소년 발표력 향상과정 - 청소년 토크콘서트 및 공청회 대비 발표 향상	13명
11월	정책제안서 최종 작성 10. 25.(토)	- 정책제안서 최종 8건 작성 완료 및 제출 - 각 고양시청 부서별 피드백 진행 예정	15명
	정책공청회리허설 11. 1.(토)	- 청소년 정책공청회 리허설 진행 예정 -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	20명
12월	정책공청회 의회&청참위 교류활동 11. 8.(토)	- 청소년정책공청회 발표 진행 - 고양시의회 청소년 & 참여위원회 청소년 교류	40명
	청소년정책공청회 및 토크콘서트 11. 15.(토)	- 시장님 인사 말씀, 경영본부장 격려사 등 - 각 학계, 공무원, 학부모, 청소년참여기구 등 토론 - (1부) 고양시 4대 의제, 청소년이 제안하다. - (2부) 청소년 정책 토론 한마당	시의원 등 100명
	정기회의 및 마무리활동 12. 6.(토)	- 참여위원회 활동 및 소회 나누기 - 26년 신규 위원 모집 안내 및 면접 계획 수립	15명

3. 활동성과 총평

1 고양시의회·시청과의 협력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고양특례시의회와 고양시청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제안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음. 시의원 특별강의, 정책제안 활동 워크숍(참여 전문가), 제안 전문가 특강(유병철 강사) 등 전문 강연을 연계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였음. 또한 고양시 예산담당관실과 협력하여 예산 및 강사진 지원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서 작성과 실습을 통해 실제 행정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였음. 이 과정에서 청소년 제안 7건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출되었음.

2 선배 기수와 연계한 연어 프로젝트

20~25기 차남회와 더불어 대학생 7명 위촉이라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하였음. 연어 프로젝트를 통해 선배 기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 위원에게 전수되었으며, 이는 정책제안 과정에서 피드백 체계를 다ност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함.

3 정책제안서 작성 과정의 체계성

정책제안서는 브레인스토밍 → 또래 의견 공유 → 분과별 발표 및 동료 피드백 → 선배·실무자·멘토·시청 담당자 피드백 → 최종 수정 및 완성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총 10건이 작성되었고, 최종 8건을 제안함.

4 교류활동과 의견 수렴

고양시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수련시설 5개 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음. 이를 통해 다양한 시설의 청소년 참여 주체들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고양시 축제 부스 운영,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生生한 목소리를 수렴하였음. 이로써 정책 제안이 행정·의회·청소년 현장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갖추게 되었음.

5 지역사회와의 정책공청회 추진

25년은 시장과의 토크콘서트를 넘어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공청회를 기획하였음. 이를 위해 고양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고양시청 공무원 등을 섭외하였음. 본 공청회는 청소년 정책제안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경험을 결합하여 상호 소통을 이끌고, 청소년 의견이 제도권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6 경기도지사상 수상

25대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공와이파이 접속화면을 활용한 장기 실종 아동 정보 공개」 정책제안을 통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였음. 이번 성과는 고양시청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위원회의 협업 속에서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이 도 단위로 확산·인정받은 사례로,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임.

4. 활동사진



정책제안서

건강복지분과

조윤슬, 이수연, 장동혁, 이소연

고양시 공공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이용한 장기 실종 아동 정보 공개

고양시청소년재단 스포츠 전문화 수련관내 인바디 설치

고양특례시 남녀 청소년 대상 HPV 9가 백신 지원

교육분과

김규민, 노규진, 신채영

청소년 대상 지역 정치·민주시민 교육 확대

고양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전교육 지원 사업

교통안전분과

정은아, 김동혁, 김규리, 이소윤

고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

환경분과

구서영, 정서준, 강지민, 박은빈

고양시 빗물받이 반영구 위치 표식 확대 사업

고양특례시 일산 라페스타 거리 및 지하철역 인근 내 전단지 수거함 설치

건강복지분과

조윤슬, 이수연, 장동혁, 이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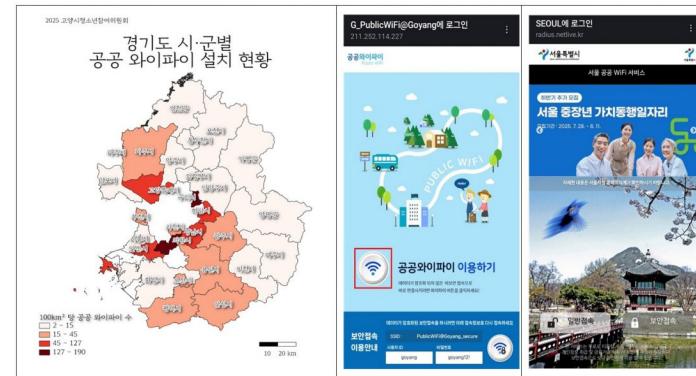
고양시 공공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이용한 장기 실종 아동 정보 공개: 가족과 연결 중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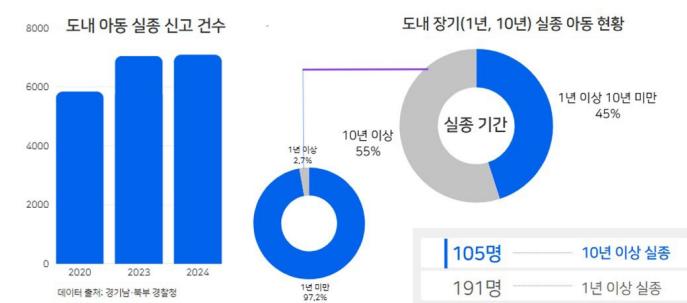
■ 고양특례시의 환경적 특성

– 고양시는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장비 93대를 전면 교체하고, 2027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101개소에 최신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575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도내 5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민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접속 시 시청 홈페이지나 정책 홍보 화면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이를 실종 아동 정보 제공에 활용하면 시민 참여형 공공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장기 실종 아동 수사 실태

– 경기도 내 아동 실종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이 중 장기 실종 아동은 191명에 이른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한 사례가 절반을 넘어섰으나, 경찰 인력 축소로 전담 수사 여건은 악화된 상황이다. 유전자 분석이나 병원 기록 조회 등 제도적 수단은 한계가 뚜렷하며, 결국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이 수사의 지속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사례

- 실종 아동 문제는 국가나 경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에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편의점 결제기, 은행 인터넷뱅킹, 식품 포장지, 유튜브 채널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실종 아동 정보를 반복 노출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발견 시점	실종 아동 광고 매체	실종~상봉 기간	실종 아동 홍보 기간	실종 아동 홍보 횟수
2020. 1.	홈쇼핑 카탈로그	22년	2018. 11.~2020. 1.	68회
2020. 10.	편의점 포스기	20년	2020. 9.~2020. 10.	1만 4천여 점 편의점에서 송출

■ 실종자 발견에 있어 시민참여의 필요성

-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아동 문제 해결에 있어 기술적 접근보다 시민의 꾸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모들 또한 “우리 아이가 잊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위로를 얻는다고 말한다.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에 실종 아동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실질적 발견 가능성 또한 높인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고양특례시의 스마트시티 기반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민 중심의 장기 실종자 수색 체계 확립
- 지역 내 실종자 수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3. 사업대상(수혜자)

- 수혜자: 고양특례시 및 인근 장기 실종자
- 수용자: 고양특례시 공공 와이파이 이용 시민 및 방문객
- 유관 기관: 고양경찰서, 고양시청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4.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장기 실종 아동 데이터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또는 고양경찰서
- 추진: 고양시청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담당 주무관
-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 개편 및 관리: 공공 와이파이 외주업체(네오 아이에스, 워드네트웍스 등)

■ 프로토타입

- 추진: 고양시청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담당 주무관
-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 개편 및 관리: 공공 와이파이 외주업체(네오 아이에스, 워드네트웍스 등)



■ 우려 사항 및 해결 방안

- 반복 노출로 인한 시민 피로감 → 기존 정책홍보 화면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일정 주기별로 실종 아동 정보 병행 노출
-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경찰 협조를 받아 합법적·안전하게 운영

5. 사업효과(기대효과)

- 시민 참여를 통해 장기 실종 아동 발견 가능성을 높임.
-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활용한 지자체 최초 사례로 전국 확산의 기반 마련.
- 고양특례시 ‘스마트 시티’ 전략과 연계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기여.
-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적은 비용 대비 큰 홍보·사회적 효과 기대.

6. 소요예산(사업비)

- 시스템 개발비: 접속 화면 텍스트·이미지 교체, 반응형 시스템 보정 비용 (업체 별 상이)
- 유지보수비: 고양특례시와 공공 와이파이 개수가 비슷한 (30개 차이) 군포시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용역 공고에 ₩59,424,000 제시함. 다만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무선 AP,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 하드웨어 전반을 유지 및 관리하는 용역 비용이므로 본 제안 실행 시 소요 예산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부대 비용: 관리, 홍보, 모니터링 비용

고양시청소년재단 스포츠 전문화 수련관 내 인바디 설치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질병관리청의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덕양구의 비만율은 33.1%로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33.0%)보다도 0.1%p 높은 수치임. 청소년기는 신체 성장과 발달이 활발한 시기로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바디 측정은 비만도, 근육량, 체지방률 등 기초 건강지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운동과 영양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임. 올해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시설별 특성화를 추진하며 토당청소년수련관을 문화·예술·스포츠 중심 수련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스포츠 특성화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임.
- 토당청소년수련관은 농구대회·풋살대회 등 공동체 기반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개인화된 콘텐츠에 익숙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 신체 상태 기반 운동 추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마두청소년수련관의 헬스장 운영이 종료되면서 인바디와 결과지 출력기가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를 스포츠 전문화 수련관인 토당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하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헬스장·가정의학과·체형관리실 등에서 인바디를 접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청소년시설의 역할이 중요함. 일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도 인바디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약제 운영, 재측정 제한(3개월) 등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청소년 친화적이며 학원가 중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이 더욱 효과적인 접근 지점을 제공함. 실제로 2025 고양시 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사한 의견에서도 학교 건강검진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건강 점검 요구가 높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공적 차원의 건강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됨.
- 인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센터나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 등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인바디는 청소년 건강지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문 트레이너 피드백과 연계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음.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이미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며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추가 비용으로 실현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됨.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관내 청소년이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건강을 관리할 기회를 가게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3. 사업대상(수혜자)

- 토당청소년수련관 활용 청소년 및 시민

4.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업 내용

- 인바디 측정 순서 안내판, 인바디 기기, 프린터 및 A4 용지를 토당청소년수련관 내 유휴공간에 구비. 마두청소년수련관 내 활용이 중단된 인바디와 결과지 프린터 기 이관을 통하여 비용 최소화.
- 수련관 운영 시간 내 방문한 청소년이 스스로 인바디 측정 및 결과지 출력.
- 결과를 해석하고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영상 또는 카드뉴스 제작하여 인바디 기기 옆 비치. 해당 자료는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또는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의 시선에서 제작하여, 만 9세 이상이라면 쉽고 재밌게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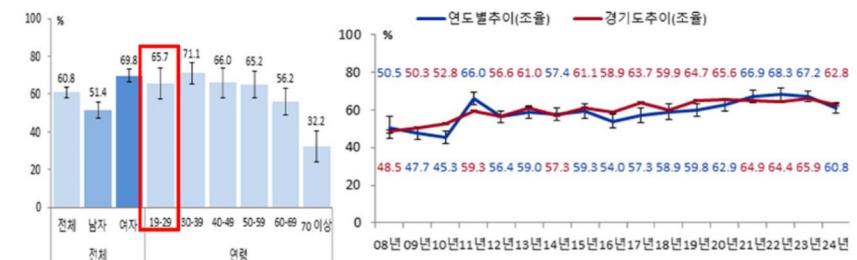
- 진주시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중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이 단체로 보건소에서 인바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만약 수련관 내에 인바디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진주시의 사례를 대안으로 참고 할 수 있음.

■ 본 제안 시행 시 보완점

- 인바디 설치만으로는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며, 이용률 저조나 청소년의 체중·감량·강박·심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재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도 후기 청소년(19~29세)의 건강생활실천율이 낮아 청소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일산동구는 남자 비만율이 41.6%로 높음에도 체중조절 시도율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 남자 청소년을 스포츠 특성화 수련관으로 유인할 전략이 필요함. 덕양구 후기 청소년은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이 65.7%로 높지만 아침 식사 실천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단순 체중 수치가 아닌 종합적인 건강지표로 인바디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즉, 인바디 설치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사용률이 낮으면 정책 효과가 약화되므로 청소년·시민의 건강 관심도를 높이는 캠페인 및 건강 활동 연계가 필요함.
2. 외모 중심 가치관이 강한 청소년들이 인바디를 체중·감량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지방률, 골격근량, 기초대사량 등 다양한 지표를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교육·안내가 필요함.



5. 사업효과(기대효과)

- 학원가 청소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 동기를 높일 수 있음.
-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스포츠·GX·스쿼시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바디 수치를 비교해 프로그램의 실제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인바디 이용을 계기로 수련관 비이용 청소년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인터뷰한 고양시 중학생 4명 모두 “인바디 측정 가능 시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해 잠재 이용률 상승이 기대됨.

6. 소요예산(사업비)

- 마두청소년수련관의 장비 이관 시: 인바디 및 결과지 프린트기 구매 비용 0원 + 이관 비용 + 유지보수 비용
- 토당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구매 시: InBody380 체성분 분석기 + 프린트기 → 약 3,000,000 원 + 유지보수 비용
- 기증 요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와 고양덕양지사에 인바디 기증 요청하여 구매 비용 절감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인바디 1대를 지원한 이력이 있음.

고양특례시

남녀 청소년 대상

HPV 9가 백신 지원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란?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대부분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남녀 모두가 감염될 수 있음.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남성에게는 구인두암, 항문암, 음경암 등을 유발함.

■ 남성의 HPV 백신 접종 필요성

– 중앙대병원 이세영 교수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HPV에 더 쉽게 감염되며 구강 내 제거율 역시 여성(90%)에 비해 남성(70%)이 낮아 남성 역시 HPV 백신 접종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질병관리청은 남여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여성에게만 접종을 지원해왔음. 현재 HPV 백신접종 국가지원 대상자는 만 12세 ~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 18세~26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임.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2011년생 남성 청소년의 HPV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2024년 기준 0.2%로, 동 연령대 여성의 접종률인 79.2%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 그 원인으로는 HPV가 여성에게만 감염된다는 사회적 인식도 있으나, 총 3회 접종 시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남성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실제로 소득과 HPV 접종률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방승현 외, 2012)¹⁾

■ 9가 백신 지원의 필요성

– 현재 여성에게 지원되는 백신은 HPV 4가 백신(가다실)이나, 미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4가 백신의 판매를 중단하며 9가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미국·영국·캐나다·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과 OECD 29개국은 이미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에게만 HPV 백신을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함. 한국은 4가 백신을, 일본은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음.

– 현 정권은 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질병관리청 역시 내년(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에게도 HPV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관련 논의는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왔고 또한 좌절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백신 종류가 달라질지는 미지수임.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지원하는 HPV 백신의 종류를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HPV 감염률 감소.

– HPV는 성별을 불문하고 감염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 보건 수준 향상.

3. 사업대상(수혜자)

- 관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 18세~26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관내 12세 남성 청소년

4.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업 내용

- 2026년 정부의 지침으로 기존 지원 대상 및 12세 남성에게 HPV 4가 백신이 지원될 경우, 고양특례시가 관내 동일한 대상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예방접종 지원) 개정
- 관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 18세~26세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관내 12세 남성 청소년 순서로 9가 백신 지원 단계적 확대.

■ 타 지역의 유사 정책

- 국가 차원에서 HPV 백신을 지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시비를 활용하여 백신을 지원하는 경향이 2023년 이후부터 나타남.
- 여성 대상 9가 백신 지원: 충주시(18~26세 여성), 화성시(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
- 남녀 대상 4가 백신 지원: 인천 옹진군(12~17세 남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남성), 부산광역시 사하구(26세 이하 남녀)

■ 예산의 한계 속 단계적 확대

- 전술했듯 기존에도 여성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거나 남녀 모두에게 4가 백신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었으나 고양특례시는 이들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시 차원의 연구를 통해 백신 지원 대상별 HPV 관련 질환 발병률, 예방 효과 등 비용 효과성을 검증하여 어떤 집단(여성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 남성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HPV 9가 백신을 지원해야 하는지 분석 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5. 사업효과(기대효과)

- HPV 백신은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대상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종류에 있어서도 9가 백신의 수급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에 고양특례시가 선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지역 만족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6. 소요예산(사업비)

*고양특례시 연령대별 등록 인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아래 산출식으로 갈음함.

- 산출식: (1인당 9가 백신 지원 비용 약 60만원) * (집단별 인구) + 부대 비용(관리, 홍보, 모니터링 비용)

청소년 대상 지역 정치·민주시민 교육 확대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10대 유권자 증가와 민주교육 필요성

–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만 16세로 하향되면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상당수가 새로운 유권자로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한 권리 확대를 넘어 책임 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정치 이해도, 법제 지식, 판단력 등 민주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10대 유권자 수는 이전 선거 대비 48.3% 증가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시민 환경 조성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7.8%가 임금 미지급, 42.3%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27.6%가 폭언·부당 지시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상 노동·시민 교육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 민주적 학교문화의 긍정적 영향

–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민주적 분위기와 토론 문화는 청소년의 참여적 시민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ICCS 2016 기반 연구에서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강할수록 학생들이 사회운동 및 관습적 참여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선거 참여 의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신뢰적·참여적 문화는 합법적 정치 참여 의지를 강화하며, 비합법적 정치 참여 의도는 오히려 낮추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한편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에서는 성인이 되었다고 정치적 성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소년 시기가 가치관·사회적 관심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임을 지적한다. 한국 공교육이 정치 논의를 제한하고 제도 암기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이는 청소년이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는 민주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건강한 시민성을 형성하는 필수 기반임을 보여준다.

19, 20대 대선 유권자 연령별 인구 변화

단위: 명 ● 19대 대선 ● 20대 대선
※ 20대 대선 유권자는 2022.1 주민등록인구 기준(유권자 확정 전 수치임)



자료: 새누리당
The JoongAng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가상국가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원리와 사회 구조를 실험적으로 배우며, 증가하는 청소년 유권자에 맞춘 정치·경제 참여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대상(수혜자)

-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4.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 고양시는 2018년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비교적 선도적인 사례이다.

2.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한계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고양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민주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밖에서 단발성으로 이뤄져 지속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연계 사례로 노동 인권 교육 등이 있으나 역시 짧고 일회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역할 수행·의사결정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3. 타 지역 사례 및 시사점

- 부산 송수초등학교의 ‘삼다수국’ 가상국가 운영 사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정치·사회 원리를 직접 체험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책임감, 주인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고양시도 이와 같은 학교 현장 중심의 장기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도입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반이 나라라면?” 가상국가 운영 프로젝트]

1) 대상

- 학급 또는 학급과 유사한 소규모 공동체·모임

2) 운영 방식

- 교실을 ‘작은 국가’로 설정하고, 참여자들은 대통령·의원·공무원·상점주인·판사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투표로 배정한다. 직업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며, 기본법 제정·대표 선출·모의 재판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법 구조를 직접 경험한다. 일일 활동 후 개인 일지를 작성하며, 쉬는시간·창체 시간 등 교과 외 시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법·사법·경제 활동을 실습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수입과 세금 납부: 주어진 화폐(가상 화폐)로 임금, 세금, 소비 활동 체험을 한다
입법 활동 : 정기회의, 법 제정 제안 및 토론, 투표를 통한 법안 통과
사법 활동 : 갈등, 직업불성실, 지각 등의 상황시에 모의 재판 진행

3) 추진 방안

- 사전 교육: 민주주의 기본 개념, 직업, 세금 등 기초 교육 실시 후 국가 이름·상징·화폐단위 등을 공동 결정
- 운영 방식: 희망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후 고양시 전체로 확대
- 사후 평가: 개인 성찰 일기 작성, 전체 평가회의, ‘최고의 시민상’ 선정 및 시상

6. 사업효과(기대효과)

- 직업 수행과 법 제정·투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함.
- 세금 납부, 갈등 해결 등 실제적 역할 수행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함.
- 일지 작성과 토론을 통해 자기 성찰 능력과 타인과의 의견 조율·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됨.

7. 소요예산(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수상 상품 비용 및 운영비) : 3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20만원

강사비: 150만원

● 총 소요 예산 : 200만원

고양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전교육 지원 사업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5%로 지난 '20년 조사(39.9%) 대비 9.6%p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청소년은 83.6%로 지난 '20년 조사(11.0%) 대비 5.4%p 증가하였다. 청소년 비임금 근로자의 수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023년의 실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37.8%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42.3%는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27.6%는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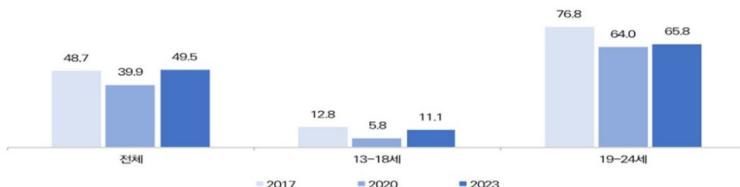


그림 14. 아르바이트 경험률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권·산업안전·감정노동 대처법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함.

– 경험자 멘토링과 참여형 교육을 통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 청소년이 부당 대우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 감수성과 실천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

3. 사업대상(수혜자)

– 고양시 관내 만 15세 – 24세 청소년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함.

- 고양시는 산업 및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노동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됨.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고양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률은 추상적이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음. 이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가운데 교육부의 진로 교육 내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노동권은 선택적 또는 간단히 다뤄지는 수준의 교육이 진행 중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회기: 분기별 총 5회기

2) 대상: 고양시 관내 만 15세 – 24세 청소년

3) 내용: 노동 관련 강의 및 멘토링 활동

- 노동 전문 강사와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서포터즈와 연계하여 진행

- 기존의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지어 교육을 진행했던 노동 교육과 달리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상의 정의되어 있는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대상을 지정함.

- 모든 회기에 간단한 강사의 강의식 교육 포함하도록 함.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모집 대상: 청소년과 노동인권에 관심있는 만 19~24세 청소년

주요 활동: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제안 활동 / 학교 연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대·내외활동 연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모집 대상: 청소년과 노동인권에 관심있는 만 19~24세 청소년

주요 활동: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제안 활동 / 학교 연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대·내외활동 연계

- 모든 회기에 간단한 강사의 강의식 교육 포함하도록 함.

4) 세부내용

회기	주제	교육방법
1회기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퀴즈 & OX 퀴즈- 강사의 사례 중심 설명- 미니 모의상황극(청소년 서포터즈와 함께)- Q&A 멘토링
2회기	최저임금 계산법과 수당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퀴즈- 워크시트 실습: 내가 받은 시급 계산해보기- 사례 토의- Q&A 멘토링
3회기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서 예시 분석 & 빙간 채우기 실습- 역할극(청소년 서포터즈와 함께)-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전 확인할 것 5가지- Q&A 멘토링
4회기	고객 응대 상황 대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노동 체험 연극 & 토론- 감정곡선 일기 작성 (스트레스 자각 훈련)- 대처 카드 만들기- Q&A 멘토링
5회기	산업재해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사고 사례 영상 시청 후 토론- 안전 퀴즈 & 체크리스트 만들기- 119, 산재보상청구 등 매뉴얼 카드 제작- 간단한 응급처치 실습- Q&A 멘토링

6. 사업효과(기대효과)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용어와 실제 사례 중심의 노동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권 인식을 높이고, 노동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일부 청소년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지역 내 전반적인 청소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7. 소요예산(사업비)

- 일부 청소년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접근을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약 8,700명에게 214회 교육을 시행했고, 연간 수십 회 운영되며 수천만 원 단위 예산으로 운영된 사례 존재

- 강사비: 100만원(노동 전문 강사 1명 × 5회기)
-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운영시 필요한 자료 및 간식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50만원
-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봉사 시간 지급
- 총 250만원

교통안전분과

정은아, 김동혁, 김규리, 이소윤

고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고양시 내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발생률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사회 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전거 사고는 약 37%, 부상자는 40%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청소년의 통학 및 여가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전교육의 실효성 부족과 도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 (가해자 자전거 운전자/청소년, 서울지역 기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고(건)	286	286	306	278	407
사망(명)	0	1	3	1	1
부상(명)	328	317	345	312	454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사고현황)

- 고양시 전체 자전거 사고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5~27%로,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2년 사이 사망자 및 중상자 발생이 반복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육계, 시의회 등에서도 교통안전 강화 및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미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공식 안전교육 항목(2022~2025년 기준) 역시 체험·활동 안전, 재난 대응,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수칙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이동 수단 관련 위험에 대한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수련 시설 내 프로그램의 사전 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신체·정신·금전적 측면에서 사고와 부상 위험을 겪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대상(수혜자)

- 고양시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5개소에서 약 5,000여 대의 장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대여업체의 등록·의무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행정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캠페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방식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이나 낮은 흥미로 인해 모든 청소년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 청소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안전 교육을 찾아 듣거나,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양시가 이미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청소년 센터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 교육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안전교육)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지도사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성폭력·성추행 예방교육과 피난 교육 등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이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련된 안전교육이 부재한 상황임.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운영 방식프로그램 시작 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지도사가 기존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난 교육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병행
 -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안전장비 구비 등 실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 안전교육은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조적 홍보 활동
예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포스터(카드뉴스)

를 제작하여 수련시설 게시판, SNS 그리고 청소년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게시
2. 타 지역 사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포함한 별도의 교육자료와 카드뉴스를 지속적이게 개발·배포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한 선도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음.



6. 사업효과(기대효과)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교통사고 및 부상 발생률을 낮추고, 올바른 이용 습관과 안전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존 안전교육 체계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청소년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안전수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7. 소요예산(사업비)

- ppt 제작과 관련해서는 예산 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
- 디자인 비용: 기본 시안 1~2개 제작 시 약 20만~30만 원
인쇄비: A2 크기 1장당 3천~5천 원 수준 (20장 제작 시 약 6만~10만 원)

고양시 빗물받이 반영구 위치 표식 확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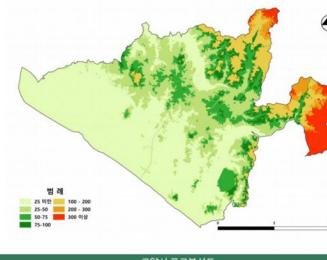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

– 기후위기 및 집중호우 증가로 침수 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2024년 고양시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102mm, 누적 강수량은 303mm로 전년도 시간당 54mm, 누적 146mm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함.) 특히 고양시는 한강과 인접한 지역이 많고,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다는 지리적 특성이있기에 집중호우나 한강 수위 상승 시 침수 피해에 취약한 편.(측면의 이미지 출처: 고양시 환경백과)

– 최근 2025년 8월 13일에도 시간당 100mm의 극한호우가 내리며 고양시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겪음. → 빗물받이 막힘의 주요 요인으로는 설계적 요인(관례적 빗물받이 설치, 배수성능 문제), 계절적 요인(가을철 낙엽), 생활적 요인(담배꽁초, 쓰레기 상시 투척, 불법 덮개 등)이 있음.

3) 지형주제도
– 표고분석도
고양시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을 보이며, 서쪽 지역은 한강과 접해 하천 퇴적지인 광저평으로 낮은 지형이 펼쳐지고 동쪽의 북한산과 동북쪽의 우암산이 만나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형을 확인할 수 있음



고양시 표고분석도

– 특히, 생활적 요인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은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2021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꽁초 및 비닐 쓰레기가 빗물받이를 막았을 경우 역류 현상이 나타나 침수가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됨. 자자체의 빗물받이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무단투기된 담배꽁초 및 쓰레기가 상시 퇴적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시민 인식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고양시 재해 예방 공모사업과 연계 가능

– 최근 고양특례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1032억 원 국도비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1425억 원 가량의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침수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침수 피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침수 및 도로 범람 시 빗물받이 신속 파악 및 접근성 강화
- 유지보수 및 준설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3. 사업대상(수혜자)

- 직접 수혜자: 고양특례시 내 상습 침수지역 주민, 상가, 차량 이용자
- 간접 수혜자: 고양특례시 전 시민(교통, 환경, 안전 인프라 향상)
- 행정 수혜자: 시청 및 구청 방재 부서, 주민센터의 업무 효율 증가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 현행 유지보수 사업

- 덕양구청에서 반영구 위치 표식을 설치하여 빗물받이 위치 확인 및 유지보수 접근성을 개선함.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내는 사례 중 하나로, 현재는 '덕양구'라는 제한적 적용에 그치고 있지만 일산동구, 일산서구까지 포함하여 고양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음.

■ 표식 부재 및 내구성의 문제점

- 표식이 되어 있지 않은 빗물받이의 경우, 도로 밑에 위치해 위치 식별성이 낮아, 주민신고 및 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곧바로 대응하기 힘들. 기존 방식의 스탠드형 표식판은 철제 고정판에 플라스틱 재질을 부착하여 경계석에 설치하는 형태로, 내구성이 약해 2~3년이 지나면 파손되거나 떨어져 문제점으로 지적됨.

■ 유관정책 한계

- 인식 개선 사업은 있으나 물리적 인프라 지원 및 홍보 부족.
-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시민들의 제보로 시작한 활동으로, 시민들 또한 장마철 침수 피해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 덕양구 지축역 일대, 일산동구 백석역, 라페스타 먹자거리, 중산동 일대, 일산서구 대화역, 탄현동 먹자거리 등에서 진행한 6회 단기 프로젝트로, 지속성을 가지고 고양시의 시설 정책으로 확대한다면 시민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인식개선 캠페인의 결과물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서울시 사례(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 인식 제고)서울시에서는 빗물받이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 디자인을 적용한 "옐로박스"를 설치하여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고양시 내 모든 빗물받이에 설치하기보다는, 침수 피해가 잦은 덕양구 저지대 지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 중점 관리지역에 적용할 수 있음.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에 각각 100개씩 총 300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힘.



6. 사업효과(기대효과)

- 재난 대응 속도 개선: 침수 시 신속하게 배수시설 확인 가능
-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현장 인력의 시간 및 노동 절감. 빗물받이 한 개에 표식을 설치하는 시간도 스탠드형 표식판 설치시간인 10여분에서 페인트 분사시간인 10여초로 단축됨.
- 장기적 비용 절감: 침수 피해 및 보수 지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 해양 생태계 환경 보호: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빗물받이 정화 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 중 75%가 담배꽁초로 확인됨. 특히, 담배 필터에 포함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크기가 작고 독성 성분이 남아 있어 정화가 어려움. 빗물받이 인식 개선이 활성화된다면, 이 또한 방지할 수 있음.

7. 소요예산(사업비)

- 언론 자료에 따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받이 글자판' 제작과 유성 분사 페인트 비용 등 40여만 원으로 위치 표식을 실시하고 있음.(덕양구 내 빗물받이 2만3000여 곳 기준)
- 설치비용 또한 예산 수반 없이 담당 공무원이 민원현장 출장을 나가면서 주변의 빗물받이에 표식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여 비예산으로 전개되고 있음.

고양특례시

일산 라페스타 거리 및

지하철역 인근

전단지 수거함 설치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올바른 전단지 분리배출 증진

- 전단지는 종이나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의미함.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전단지가 종이로 분리배출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전단지는 종이에 코팅이 된 형태로, 일반 쓰레기에 해당함.

- 불법 전단지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감소

- 불법 전단지의 경우, 길거리의 미화를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치구 별로 전단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구청의 인력 및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됨.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쾌적한 거리 조성: 도로변 곳곳에 버려지는 전단지의 양 감소 및 올바른 전단지 분리배출지향.

- 고양특례시민의 올바른 환경 인식 형성: 도시 미관 개선에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문화 확산.

3. 사업대상(수혜자)

- 전 고양특례시민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과 이의 관할을 받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청결 유지 및 명령 등) 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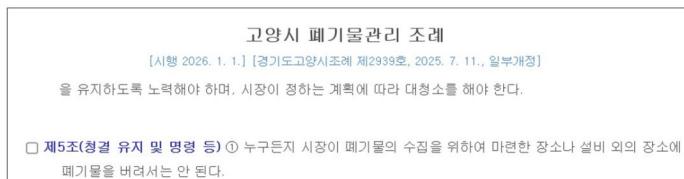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서

– 경기북부경찰청은 2024년 7월 9일부터 ‘유흥밀집지역 클린화’를 추진하고 있음. 지난 6월 한 달간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 거리에서 성매매 전단지 살포 행위자들을 단속함. 불법 전단지 이천 여장을 압수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7명을 입건함. 10월 한 달간 불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 그 중 고양 화정역이 포함됨



– 여의도 한강공원은 2019년 7월 31일 여의나루역 1~4번 출구 보행로에 전단지 분리수거함을 배치함. 유동인구가 많은 곳, 쓰레기 무단투기율이 높은 곳, 기타 분리수거함 설치가 필요한 곳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영등포역, 당산역, 여의도 증권가 및 주요 대로변에도 설치함.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산 라페스타 거리 및 지하철역 인근에 전단지 수거함 설치

6. 사업효과(기대효과)

– 2019년 7월 31일 여의도 한강공원의 거리 쾌적화를 위한 전단지 수거함 설치 후 한강 내 환경미화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단지 수거함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단지 수거에 동참해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산 라페스타 거리 및 지하철역 인근 전단지 수거함 설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해 길거리 전단지의 양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소요예산(사업비)

– 전단지 수거함 관련 비용(설치, 관리, 유지 등)
– 전단지 수거 인력 비용

참고문헌

고양특례시 남녀 청소년 대상 HPV 9가 백신 지원

– 밤승현, 유애리, 조선영, 최인선, 김성완, 정유, 이은혜, 장준태, 한미아. (2012). 일부 여대생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186–194. <http://dx.doi.org/>

청소년 대상 지역 정치·민주시민 교육 확대

– 유혜영. (2020). 민주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참여적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양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전교육 지원 사업

– 여성가족부. (2024).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노동권 인식 조사.
– 성남시청소년재단. (202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사업 사례 보고서.
– 경동구 노동권익센터. (2021).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례.

고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안전교육 양식. 공공데이터포털.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3년 10월 25일). [안전] 청소년활동 안전정보(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카드뉴스 제공.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5년 3월 10일). [안전] 2025년 안전정보 카드뉴스(3월).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경인자치신문. (2024년 7월 18일). 고양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고양시 빗물받이 반영구 위치 표식 확대 사업

– 윤선권, 황성환, 김민석, 최현석. (2025). 배수기능 확보 위한 빗물받이 설치와 유지관리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황지영. (2023, 9).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빗물은 빗물받이에” :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 침수 피해 키워. 월간환경, 275, 110–113.
– 최현석. (2023). 길거리 공조 투기가 금지된 싱가포르에서는 빗물받이가 덜 막힐까?. 대한토목학회지, 71(12), 112–114.
– 2024 고양시환경백서 1부 고양시환경정책, 2부 환경일반현황, 3부 고양시환경관리기반조성

고양특례시 일산 라페스타 거리 및 지하철역 인근 전단지 수거함 설치

– 중앙일보. (2022). “지구 살리는 생활 속 작은 실천, 분리배출 질하려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175>
– 파이낸셜뉴스. (2018). “길거리에서 건네받는 전단지, 불법인 거 아시나요?”, <https://www.fnnews.com/news/201801251437024125>
– 연합뉴스. (2024). “경기북부경찰, 유흥가 성매매 전단지 살포 집중단속”.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9071900060?input=1195m>
– 매일일보. (2019). “영등포구, 전단지로 몸살... 여의도 한강공원에 ‘수거함’ 설치”.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26137>

참여 소감



송병준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간사

참여위원회 간사로 함께한 지난 1년은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책을 고민하며 책임감 있게 제안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도적이고 성숙하게 정책 과정을 이끌어 주셨고, 그 결실이 지역사회 변화로 확산되는 장면에서 청소년 참여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장을 듣는히 돋겠습니다. 열정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은빈

학술국장

제안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 기대를 가지고 참여 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했던 활동은 단기간에 제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나 체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참여 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갈 수 있었고, 평소 환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제안으로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보람찼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함께했던 선생님, 위원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 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찬미

위원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낸 한 해는,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서투름이 있었기에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열정으로 나아간 위원님들과 늘 곁에서 함께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모든 시간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참여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순간으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소윤

사무국장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활동을 하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여해 청소년 의견을 직접 전달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고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소연

홍보국장

우연히 선생님의 추천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만, 제안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초반에는 정책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정책이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면 어떻게 바꾸면 시행될 수 있을까?’ 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걱정이 많았던 시작과 달리 경기도 지사상이라는 큰 성과까지 얻게 되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1년 동안 중심에서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위원장님, 자료 제작과 제안서 작성을 위해 힘써주신 분과장님, 분과가 달라도 진심으로 피드백을 주며 도와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제안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주고 늘 청참위를 응원해 주신 송병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멋진 분들과 함께한 1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김규리

부위원장

부위원장 역할을 뒤늦게 맡아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제안도 현실성이 부족해 올라가지 못해 많이 아쉬웠고, 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 많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제안과 태도로 임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규민
교육 분과장

1년 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며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중간중간 바쁜 일정이 겹쳐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제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접할 수 있었고, 청소년 정책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만큼 다음에는 더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1년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준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구서영
환경 분과장

다시 돌아온 청소년재단, 그 중에서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고양특례시의 어떤 점을 관찰하고 신경쓰고 기억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는 '나 자신과 우리 시민들, 다른 지자체 시민들에게 고양시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의 고민이었습니다. 함께 생각을 모으고 고민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정책', '좋은 제안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은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고, 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배움터였습니다. 공감과 다정한 시선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는 작은 신념이 견고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은 어리고 미숙한, 언젠가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동등한 시민입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의 활동과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위원님들과 송병준 선생님,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은아
교통안전 분과장

제가 청소년 참여 위원회 활동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정책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재밌었기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쭐했지만 분과장으로써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고 제안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해 보긴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활동이 제게 있어 값지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점입니다. 청참위 활동은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 더불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할 힘을 얻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이 아쉬웠기에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발전된 제가 되어 청참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활동한 모든 위원님께도, 제게 아끼지 않는 칭찬 해주신 마두 청소년 수련관에 계신 모든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조윤숙
건강복지 분과장

이번 활동을 통해 팀워크가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깊이 느꼈습니다. 건강복지분과장으로서 소수자를 위한 제안을 준비하며, 한 사람의 목소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제안상을 받게 된 것도 제 실력보다 함께했던 팀원들의 응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디지털과 자본이 빠르게 흐르는 시대에도 아침 10시에 모여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했던 우리 위원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삶에 오래 남을 문장 하나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수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3년간 활동 중 올해 뜻깊었던 점은 제가 이전 활동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주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활동하면서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형 누나들이랑 같이 해서 좋았어요. 제가 한 제안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다음엔 더 잘해보고 싶어요!



정서준



노규진

이번 활동을 통해 발표하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들의 모습에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어 큰 자극이 되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자신 있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장동혁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정책을 논했으니, 이름을 바르게 한 일이었다. 1년의 활동은 인(仁)을 실천하는 수련의 과정이었다. 자신이 올바르면, 정책 제안 또한 덕이 있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곳을 거쳐가는 이여, 널리 배우고 뜻을 돋독히 하라.



김동혁

저는 올해 처음으로 청참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정책 활동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아직도 잘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는 청참위를 현재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야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청참위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각한 적도 없고 결석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이졌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참위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리 고양시 더 나아가 경기도, 그것보다 더 넓은 대한민국, 마지막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초등학교 5학년 김동혁이었습니다.



강지민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있어 항상 느리고 고민이 많던 저에게 청소년참여위원회란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접하고 정책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를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의 변화한 시선을 보면 1년의 모든 만남이 큰 배움의 시간이자 가치있는 성장의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 제가 관심있던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문제들을 바꾸어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온 모든 위원님들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신채영

1년동안 조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활동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그 만큼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 나갈수 있었던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서

특별부록: 조윤슬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마무리 소감

청소년이라는 이름과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을
붙잡은 우리가 애틋할 것

만기 전역 소감

올해로 활동 가능 최대 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을 합니다. 인생 최초의 면접이었던 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면접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참여로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참여 위원으로서의 첫해에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무언가를 망치지 않는 상태’를 바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도 ‘무언가를 앗아가는 사회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매해 그랬듯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접에서는 “사회가 안 변하면 어때요. 제가 변하는데.”, 회의적이고 희망차게 말했습니다. 참여 활동 초기에 저는 사회 문제를 꼬집으며 자신은 그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청참위는 점점 비판보다 성찰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과 외 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한 교육분과,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를 설명하는 환경분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주말을 보내고 학교에 갔을 때, 참정권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는 잠을 보충하거나 문제집을 푸는 게 현명하다고 여기는 저를 발견하고, 인류세 관련 논술 시험 직후의 쉬는 시간에 일회용품들을 사러 자판기로 몰려드는 학생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쉽게 잊는 사회’를 서러워했으며 나 또한 그 사회를 지탱해왔음을 깨달았을 때, 뒤늦게 상처를 책임질 방법은 다짐이었습니다. 사라진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면 밟힌 전단지들을 주워가겠다고.

이처럼 참여 기구는 교육적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소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여는 지역 사회뿐 아니라 위원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에게 열여덟은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나이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열여덟 살은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사회는 인공지옥.”이라는 말의 진위 여부를 시험하기 직전 단계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면함으로써 얻는 배움은 입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일찍 직면해 보니 사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걸 파고드는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회를 덜 두렵게 하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뚜껑 깨진 네 임펜이 아플까 걱정하는 어린이의 세계를 누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밥 잘 사주는 멋진 언니들이 ‘생각보다 해쳐 나갈 만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독 스컬하고 싶었던 올해를 떠올렸을 때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마철수 대표 미남 송병준 선생님께서 미남 관장 계보를 이으실 때쯤 지금을 돌아보면, 청소년이라는 이름과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을 붙잡은 우리가 애틋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위원분들께

미래의 위원분들께 떠넘기고 싶은 제 꿈들이 많은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이루지 못했던 꿈 하나는 ‘알아줌’입니다. 여러분 경험 외부의 고통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 고통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다들 잊을까.’ 되뇌이는 사람이 없도록, 당사자가 문제를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떤 고통은 스스로 덮어두지 않고서는 살 아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기록하여 꺼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포착하는 시간은 길어도 됩니다. 해결방안은 문제를 세밀히 조명했을 때 저절로 보이므로 ‘제안서’ 이전에 ‘보고서’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 또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도 대화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해온 일, 해결 주체가 명확하며 해답이 뚜렷한 문제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참여위원회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피해온 문제들(골프장, 연금, 양극화된 청소년의 정치 성향, 10대 자살, 교내 딥페이크)을 다루는 공청회를 열고,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타국의 청소년 참여 기구와 비대면 회의하고, 아무도 인터뷰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참여 활동은 저에게 <문제들을 들춰내기–그리고 까먹기–내 삶을 살기>의 반복이었는데, 제가 사회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보니 문제를 포착하고 세상에 말해주는 사람이 귀했습니다.

외부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부의 노력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의미로 존속됩니다. 일 끝나고, 수업 끝나고, 소셜미디어를 보고 소감을 발표하지 않지만, 참여 활동이 끝나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 참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쾌락적 이득이 아닌 각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력을 알아주고 서로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응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모두 기업인 시대에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시간 투자. 거대 미디어 기업의 자본주의적 책략 속에 고개를 둘지 않는 것. 우리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니까요.



발간등록관리번호 GCYF-2025-03-007

발행일 2025년 11월 30일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발행인 이재신 관장

사업 담당자 송병준 팀장

청소년참여위원
우찬미, 김규리, 박은빈, 이소윤,
이소연, 김규민, 조윤슬, 정은아,
구서영, 이수연, 정서준, 노규진,
장동혁, 김동혁, 강지민, 신채영

편집처 오후서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전화번호 031-995-4153

홈페이지 <https://www.gcyf.or.kr/md/>

